

K-FARM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유형분류

강신길 · 최영완* · 김영주**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역특화사업부 부장 ·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상국립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 교수

Analysis on Cases and Classification of Types for the Construction of K-FARM Framework

Kang, Shin-Gil · Choi, Young-Wan* · Kim, Young-Joo**

General Manager,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Agricultural and Lif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g. (Insti. of Agri. & Life Sci.),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ABSTRACT : As the measures for solving problems of modern city and farming & fishing villages through mutual cooperation and complementation,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integrated rural area development model by changing the farming & fishing villages from a food production-focused space to a service space for the whole nation including urban residents, into the direction of creating new vitality and jobs in farming & fishing villages. In order to establish a service space that could increase the life quality and happiness of the people, this study presented the K-FARM framework types that would integrate and arrange total four themes such as rental farm, experience farm, stay farm, and management farm. In case when this K-FARM framework is applied to rural areas adjacent to cities, especially farming & fishing villages around innovative cities, there would be great effects such as expansion of exchanges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residents of innovative cities. Especially, the theme model classified into four types could be applied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farming &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district that is currently operated. Meanwhile, to realize the construction of K-FARM framework, on top of demand analysis of rental farm, it would be also necessary to additionally analyze the urban residents' demand for experience farm and management farm.

Key words : Allotment Garden, Community Garden, Innovation City, K-FARM, Rural Revitalization Project, Staycation

1. 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30-50 클럽),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 등의 업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압축성장으로 인하여 현대의 도시는 교통과 환경, 주택분야 등에서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OECD의 국가별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38개 국가 중 29위, 자살률 1위(인구 10만 명당 24.7명),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나라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KREI, 2019).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압축성장을 해왔으나, 그 결과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를 포함하여 지방의 11개 도시에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동력을 구축하였다(MOLIT, 2021). 그러나, 현재까지

Corresponding author : Kim, Young-Joo

Tel : 055-772-1935

E-mail : yjkim7171@gnu.ac.kr

도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열악하고 인근 농산어촌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가족 동반 이주율 저조, 기존 도시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농산어촌에서는 도시민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치유(Green Care 등)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안적 삶의 공간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하여 이를 반영하듯 각종 방송매체에서는 농어촌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Stay + Vacation)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8년에는 49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귀촌자의 51%는 40세 이하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MAFRA, 2019).

또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7.6%가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해졌다고 응답한 비중도 69.5%로 나타났으며 도시민의 20.3%가 귀농·귀촌 의향에 긍정적으로 답하였다(KREI, 2020).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 귀농·귀촌에 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생활양식(Life Style)의 변화에 따라 여유로운 삶과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귀농·귀촌과 다지역 거주(Multi-habita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재형 가족농원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Park, 2010).

독일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국가들은 일찍부터 소규모 농업생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도시 근교 또는 농촌지역에서 일상생활 속의 농업·농촌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중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심신 건강뿐만 아니라 휴식공간 제공, 아동교육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주말농장 육성을 위해 정부는 1994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주말농장 사업을 법제화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주말농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자연에 대한 욕구 충족과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Lee et al., 2007).

국내의 가족농원¹⁾ 관련 연구는 주로 주말농원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가족농원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도입단계 연구로 독일과 러시아, 일본의 체재형 가족농원이 도입된 배경과 운영관리, 체재시설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본 사례 도입의 필요

성을 주장(Park et al., 2005)하였고, 일본과 독일, 러시아의 가족농원의 특징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가족농원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Park et al., 2006)하였다.

국내에 체재형 가족농원 시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Lee et al.(2007)은 체재형 가족농원의 가장 큰 잠재 이용자인 수도권지역 주말농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특성에 따른 시장세분화 접근으로 추구 편익과 선호하는 형태를 조사하여 체재형 가족농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자 유인방안과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Park et al.(2009)은 체재형 가족농원 이용자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Park(2011)은 전북의 체재형 가족농원 계획을 위한 주거시설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전주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체재형 가족농원의 주거시설의 크기와 재료, 평면 유형 등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주로 국외 사례 소개와 추진과정, 단지 및 시설 특성,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안, 시사점 도출에 관한 연구가 지속해서 수행됐다. 반면, 농원의 이용 형태나 관리방안 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과거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의 개별사업지구 위주의 추진과 농촌인구의 정주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별사업의 경제성 부족, 도시민의 요구(Needs)를 충족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현대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상생협력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호보완 함으로써 양쪽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농어촌을 식량 생산 공간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공간으로 전환하여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통합형 농촌 지역개발 모델인 K-FARM 프레임워크(Framework) 구축을 위해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K-FARM 프레임워크 구축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가족농원과 체류농원, 테마공원 등 관련 자료와 선행연구, 전문가 의견과 도시민 수요조사를 분석하고 고찰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Figure 1).

1. K-FARM 개념

가족농원은 도시민이 농촌의 농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쾌적한 전원생활을 체험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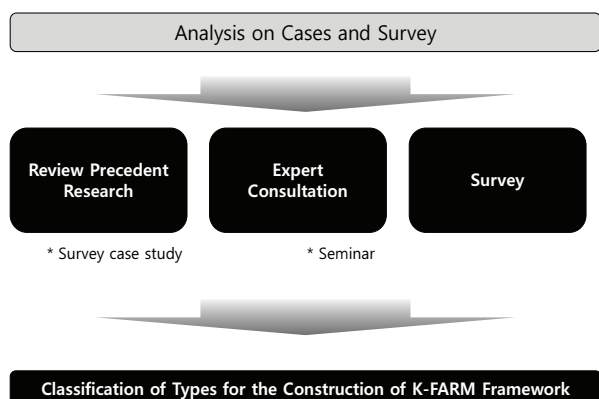


Figur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research flow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자족을 피하도록 조성된 농원시설이다. 일본은 시민농원, 독일은 클라인 가르텐으로 호칭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순 방문이나 체험이 아닌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체재형 주거시설이 갖춰진 일본의 시민농원은 독일에서와같이 클라인 가르텐으로 명명하고 있다(Lee et al., 2007).

농촌진흥청(RDA, 2008)은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형 도농 교류 농원을 포괄적 개념으로 하여 ‘가족농원’으로 칭하고 그 개념을 “소규모 원예포와 통나무집(Log House)이 결합하여 도시민이 건강, 휴식공간, 자녀교육 기능을 위해 이용하는 집단공간”을 ‘가족농원’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K-FARM은 “농촌의 사회적 병폐와 도시문제의 동시 해결이 가능한 농촌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여 농촌을 생산 공간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임대농원, 체류농원, 체험농원, 관리농원 사업을 통합 배치”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2. 전문가 의견조사

가. KRC 지역개발센터

지역 주도의 농어촌개발 정책 수립과 운영·관리 등 전 단계를 전담 지원할 목적으로 9개 광역 지자체에 내·외부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조직인 KRC 지역개발센터 참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의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하였다. 수립된 의견을 검토하여 K-FARM 플랫폼(안)을 선정하였다.

나. 관련 전문가

선정된 K-FARM 플랫폼(안)을 2019년 11월 1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계획학

회,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개최한 “균형발전과 연계한 농어촌 상생협력 추진방안 합동 세미나”와 3회에 걸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의 “농촌 유토피아 실천구상 지역 토론회”를 추진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3. 도시민 수요조사

가.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임대형 농원 규모 및 선호도 조사
- 설문대상: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PS, KEPCO 등)
- 설문기간: 2020. 5. 18.~2020. 6. 10.
- 조사방법: 현장 방문 설명 및 대면 조사
- 분석방법: SPSS Ver. 21 활용한 기술통계, 교차분석, 집단별 평균분석

나.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인구통계학적 응답자 특성(기초 항목: 성별, 나이, 동반 거주 여부 등)과 농촌체험 부분(체험(주말농원) 경험 여부), K-FARM 조성부분(분양 관심도, 분양 규모, 연간 지불의사 등) 등으로 구성하였다.

III. K-FARM 유형분류

1. 국내외 사례 분석

K-FARM 프레임워크 구축 유형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의 체재형 모델과 농산물 교류, 소통 사례를 분석하였다(Table 1).

체재형 모델로 성공적인 사례는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Klein Garten)과 일본의 시민농원(市民農園)이다.

“도시 속의 작은 정원”이라는 의미의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은 1864년 시작되어 지자체 주도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다. ‘클라인 가르텐 1구획이 병원 침상 1개를 줄일 수 있다’라는 모토로 도시민의 건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시 근교 1시간 이내의 인접한 지역에 자리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로그하우스(Log House, 통나무집)와 텃밭이 갖춰진 250m²~300m² 공간들을 도시민에게 장·단기 임대하여 건강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농원은 1920년부터 시작하여 도시형과 도시 근교형, 농촌형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고, 1990년대 관련 법률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활성화되었다. 지자체와 지역 농협주도로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 활성화에

Table 1. The result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analysis

Classification	Case Region	Contents	Implication
Stay Model	Germany Klein Gar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rted in 1864 with a meaning of ‘small garden in the city’ Being in the progress of the initiative of local governments and reflected most of them when establishing urban planning. Locating within 30 minutes around the city, 250~300m² scale per section “One section of Klein Garten can reduce one hospital b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 principle of locating within an hour near the city from the urban planning stage Developing urban-rural area, focusing on the health care of the people Available long-term lease to individuals and partial transfer
	Japan Allotment Garden (市民農園)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rted in 1920, and constructed a legal foundation for activation in the 1990s Developed into various types of urban, suburban, rural, etc Rural stay type is being distributed successfully and securing waiting list Stay type located within an hour around the city, having 200~300m² per s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Sharply spread after 1990 due to maintenance of law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farmland and ownership of the house Focusing on revitalizing the rural and fishing region through urban and rural exchange and rural tourism Operating it by local government,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ndividuals, etc. but lack of operating expenses
Agricultural Products Exchange and Communication	France Gally Fer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lly Ferme, as a representative of France’s 6th industry, has the slogan “Sharing Nature (Partage de la Nature).” Urban residents purchasing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apples, strawberries, plums, etc. cultivated in natural farming by farm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ducing the labor costs of harvesting for farmers and enjoying healthy leisure activities for urban residents Growing as a win-win business where of purchasing fresh and high-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at low prices
	Korea Sangha Rural Theme Park (Gochang, Jeonbuk)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ing agricultural and rural amenity resources and creating four-season experience farms Creating and operating a public-private partnership (Gochang-gun, public corporation, Maeil Dairies Co., Ltd.) 320,000 visitors in 2016~2018, KRW 10.3 billion in sales, and created 315 jobs Available to cultivate and experience various crops in the si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mercializing rural experiences to operate all years experience programs Contributing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but also somewhat insufficient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Japan AGRI-TOWN Health Village (Aichi, Obu)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eating a healthy theme park of agriculture, food, environment and welfare Creating a farmer’s market, a flower greenhouse, a restaurant, etc. in 160,000 pyeong(3.3m²) Selling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 at reasonable prices Reached total cumulative sales JPY 8.3 billion (about KRW 92.5 billion) in three years since its ope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egrated business model combining production, experience, food service, and sales Farmer’s Market selling local agricultural products is the key to success
	Korea Cotton Market (목화장터) (Sancheong, Gyeongn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Small-sized market opening on the 2nd and 4th Sundays of each month with the returnees and natives together Operating online band of exchange community for participants Sales or barter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food, handicrafts, toys, etc. Promoting the reconciliation of residents through cultural performances with talent donation by return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Mutual cooperating through community programs harmonizing the returnees and the natives Contributing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s an exotic local attractions
	Korea Jinan Local Foods Farmer’s market (Jinan, Jeonbuk)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tablishing a cooperative local food corporation where farmers and consumers coexist Creating the 6th industrialization theme park in connection with the nearby tourist complex and operating local food platforms, restaurants, butcher shops, barbecue houses, Saturday marketplaces, etc. Real-time sales status checking available through mobile phones by introducing ICT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egrating ICT technology in local food stores of simple direct sales Insufficient programs for mutual benefits of the city and rural, and focusing on the sale of agricultural products

중점을 두고 있다. 농촌의 유희공간이나 영농이 어려운 지역에 로그하우스와 텃밭이 딸린 200m²~300m² 규모의 구획 약 30개소 정도를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1년 단위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부 형태는 도시민의 인기가 높아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는 운영비 부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산물을 주제로 하는 도농 상생의 성공모델은 프랑스의 겔리 팜(Gally Ferme), 일본 아이치현 오부시의 AGRI-TOWN 건강마을, 전북 고창의 상하지구 농촌테마공원, 전북 진안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경남 산청 목화장터 등이 있다.

프랑스 6차 산업의 대표로 불리는 겔리 팜은 “자연을 나누자 (Partage de la Nature)”는 슬로건으로 농업인이 자연농법으로 경작한 사과와 딸기, 자두 등의 농산물을 도시민이 직접 수확하여 구매할 수 있다. 농업인은 수확하는 인건비를 줄이고 도시민은 건전한 여가활동은 물론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생 사업으로 성장하였다.

일본 아이치현 AGRI-TOWN 건강마을은 5.3ha(1.6만 평) 규모에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과 화훼온실, 레스토랑, 휴게시설 등을 갖춘 테마파크를 조성하였다. 도시민과의 정기적 교류와 공동체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통합적 사업모델로 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과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여 개장 3년 만에 83억 엔(약 92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이 마을은 생산과 체험, 요식, 판매가 종합된 통합적 사업모델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성공의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전북 고창군 상하지구 농촌테마공원은 민·관(고창군·공사·매일유업) 협업으로 농업·농촌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체험농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농산물을 직접 수확 후 가공체험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연간 10만 명 이상의 유료 방문객이 찾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참여도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전북 진안 로컬푸드직매장은 농민과 소비자가 공존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인근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6차 산업화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로컬푸드 플랫폼과 레스토랑, 푸줏간, 바비큐 하우스(Barbecue House), 토요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성공 요인은 ICT 기술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을 통해 농민이 실시간 판매현황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수시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적정 가격의 조정을 유도하는 등 플랫폼 운영의 효율을 높인 점이다. 그러나 도농 상생 프로그램은 미흡하여 농산물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경남 산청의 목화장터는 귀촌인 중심의 번개장터 형태로 매월 2, 4주째 일요일에 농수산물, 먹거리, 수공예품 등의 판매 또는 물물교환 등이 이루어진다. 이색적인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250명 규모의 온라인 밴드 회원들이 교류커뮤니티를 통해 판매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공연 등 주민화합의 공간으로 운영 중인 점을 우수사례로 들 수 있다.

국내의 도농 상생 모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독일과 일본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도시계획 수립 시 대부분 반영하도록 하여 법적인 뒷받침을 두고 있다. 일본 역시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활성화되고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의 사례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지구는 민관이 협업하여 조성/운영하거나 귀촌인과 귀농인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의 특성(도시형, 도시 근교형, 농촌 체재형 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어메니티자원과 농산물과 먹거리, 문화, 도농 교류 등 다양한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어 지역 특성 파악과 수요를 분석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판단된다.

2.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K-FARM 프레임워크 구축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지역개발 사업 실무 최고 전문가 그룹인 KRC 지역개발센터와 2회의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도농 상생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농부 참여로 도시민에게 사계절 체험이 가능한 공간계획과 소규모 마을 단위 개발 형태를 탈피한 규모화 된 사업 추진, 농촌어메니티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상시 방문객 확보, 도시민의 수요와 농어촌 경제성을 고려한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 사업 추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고려, 사업 추진 시 기존 우량농지의 훼손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의견 중에서 사계절 운영 가능한 규모화된 플랫폼형 기반 구축, 청년 농부의 참여 방안 마련, 경제성 확보 및 분석, 우량농지의 훼손 방지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귀농·귀촌 활성화에 논의가 있어 K-FARM 플랫폼 연구에 반영토록 하였다.

플랫폼(안)에 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 개최한 “균형발전과 연계한 농어촌 상생협력 추진방안 합동 세미나”와 3회에 걸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의 “농촌 유토피아 실천구상 지역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전문가 의견 중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하고, 농산물 판매 및 홍보 기능을 부여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 농어촌 빈집에 대한 사업 연계성 강화 및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확대, 제안발표(안)에 대한 구체적 실현 가능성 보완 및 시범 사업화 검토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수요조사 분석 결과

도농 상생형 모델의 핵심이 되는 임대농원의 기능과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응답자 분석

설문을 요청한 470부 중에서 유효한 표본 459부를 분석하였다(응답률 97.7%).

응답자 비율은 남성 64.7%, 여성 35.3%, 연령대는 50세~60세 이하가 41.2%로 가장 높았고, 30세~40세 이하 23.5%, 30세 이하와 40세~50세 이하가 각각 17.6%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1.4%가 자녀가 없으며, 66.2%가 가족 동반 거주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주말농원을 분양받아 체험영농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72.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 수요조사 결과

먼저, 집단별 평균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하였다. 농원조성 때 분양을 희망하는 전체 관심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Table 2와 같이 세부 항목별로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3.48점으로 여성 3.39점보다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30세~40세 이하가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 50세~60세 이하 3.48점, 30세 이하와 40세~50세 이하가 각각 3.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른 관심도는 자녀 있음이 3.46점, 없음이 3.44점으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 동반 거주 여부에 따른 관심도는 ‘예’ 3.71점, ‘아니요’ 3.32점으로 나타났다. 지불용의 금액은 금액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50~100만원 이하가 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30~50만원 이하 3.88점, 20~30만원 이하 3.39점, 10만원 이하 3.2점, 10~20만원 이하가 2.94점으로 가장 낮았다. 주말농원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59점으로 경험이 없는 응답자 3.0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혁신도시 거주 이전 생활근거지에서 농촌지역인 시의 면 지역(3.6점)과 군지역(3.59점)이

높게 나타났고, 특별시가 3.1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 동반 거주 응답자의 76.8%가 자녀가 있다고 답했고, 76.8%가 주말농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말농원 방식으로 운영하는 임대농원을 분양할 때

Table 2. Interest results for each variable using group average analysis

Part	Indicators	average	n	StDev.
Gender	Man	3.48	297	0.959
	Women	3.39	162	0.893
	sum	3.45	459	0.936
Ages	Under 30	3.11	81	0.742
	30-40 years old	3.92	108	0.643
	40-50 years old	3.11	81	1.000
	50-60 years old	3.48	189	1.008
	sum	3.45	459	0.936
Child	no	3.44	144	0.791
	yes	3.46	315	0.997
	sum	3.45	459	0.936
Salary	Under 3,000 (10 thousand won)	3.00	45	0.905
	3,000-4,000	3.46	117	1.087
	4,000-5,000	3.67	81	0.949
	5,000-6,000	3.54	117	0.933
	More than 6,000	3.36	99	0.646
	sum	3.45	459	0.936
Living with family	yes	3.71	155	1.013
	no	3.32	304	0.868
	sum	3.45	459	0.936
Amount to be paid	Under 10 (10 thousand won)	3.20	56	0.699
	10-20	2.94	119	0.837
	20-30	3.39	129	0.813
	30-50	3.88	91	0.841
	50-100	4.14	64	0.990
	sum	3.45	459	0.936
Experience of weekend garden	yes	3.59	333	0.788
	no	3.07	126	1.167
	sum	3.45	459	0.936
Living before residence	Etc.	3.00	27	0.83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3.18	99	1.034
	Metropolitan city	3.50	54	0.966
	City(Dong)	3.50	36	0.878
	City(Myeong)	3.60	90	0.667
	County	3.59	153	0.977
	sum	3.45	459	0.936

희망하는 밭의 면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10~20평 이하가 28.3% 가장 높았고, 5~10평 이하 24.2%, 5평 이하 18.5%, 20~30평 이하 15.7%, 30~50평 이하 13.3%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2-a).

한편, 관심도가 ‘높음(4점)’ 이상 243명을 대상으로 재분석한 결과 20~30평 이하의 비율이 28.8%, 30~50평 이하 23.0%로 나타났고, 5평 이하가 가장 낮은 12.8%로 나타났다(Figure 2-b).

임대농원의 연간 임대료 지불의사 조사 결과(Figure 3), 20~30만 원 이하가 28.1%로 가장 높았고, 10~20만 원 이하 25.9%, 30~50만 원 이하 19.8%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3-a).

관심도가 ‘높음(4점)’ 이상 243명을 대상으로 재분석한 결과 30~50만 원 이하의 비율이 29.2%로 가장 높고, 20~30만원 이하 24.3%, 50~100만원 이하가 22.6%로 나타

났다(Figure 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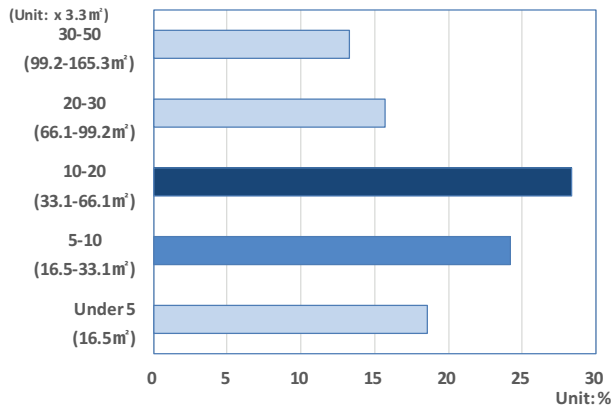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녀의 유무와 가족거주동반 여부가 농원 분양 관심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도시보다 농촌거주 경험자의 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동반거주 비율이 높은 30~40세 이하(41.7%, 3.92점)와 50~60세 이하(47.6%, 3.48점)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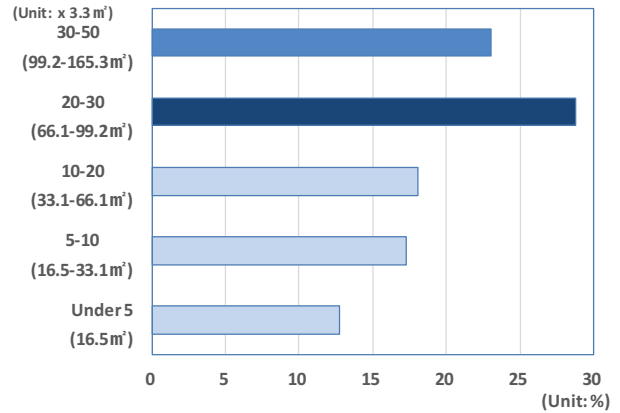
한편, 관심도가 ‘높음(4점)’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임대면적(20~30평 이하)과 연간 임대료 지불의사금액(30~50만 원 이하)이 높아지고, 특히, 주말농원 경험이 77.8%로 분석됐다.

4. K-FARM 유형 분류

농촌의 사회적 병폐와 도시 문제의 동시 해결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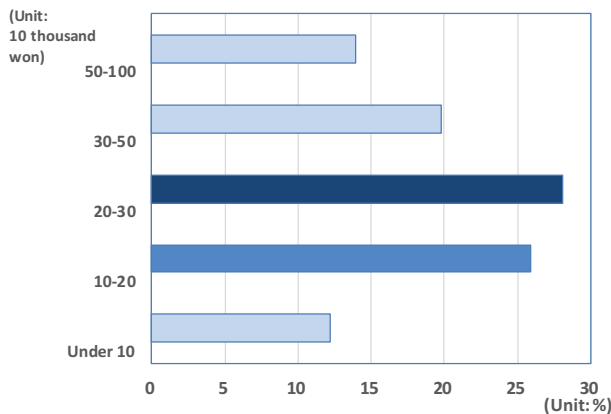


a)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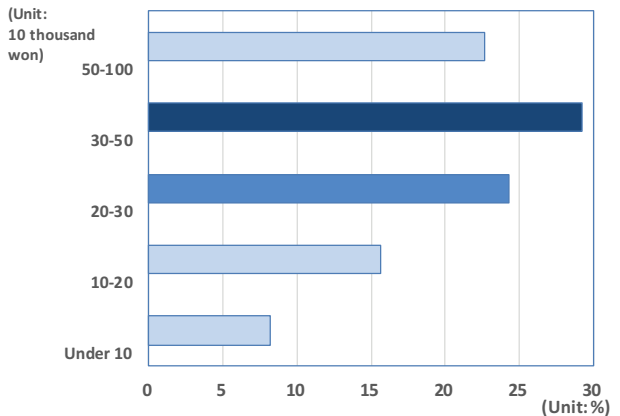


b) Over interest point 4

Figure 2. The results by survey: unit area per account



a) All



b) Over interest point 4

Figure 3. The results by survey: amount to be paid

Table 3. Classification of types for the K-FARM

Contents	Classification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nchmark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mily farms · Creating farmlands for local residents and renting for urban residents (100m² × 100 farms) ·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for agricultural equipment centers using smart technology · Providing services and creating jobs by fostering farming guides for existing farmers · Building and supporting communities 	Rent Farm	Experience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nchmarking the case of Obu, Aichi, Japan · Creating a healing space for all year green experience · Developing lands connecting between excellent rural amenity and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2,000ha) · Operating farmers' markets to exchange farm products and promote the sale of agricultural products · Developing and consulting experience progr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nchmarking Klein Garten in Germany, and the allotment garden in Japan · Developing Korean log houses (10 pyeong(3.3m²) × 100 sites) separately from rent farms · Establishing reservation and utilization system using smart technology · Increasing profitability through daily rental operation 	Farm Stay	Management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nchmarking Ferme de Gally in France · Establishing a connection system with the SOC project promoted by the Rural Agreement Policy · Operating centers by using vacant houses and idle facilities remodeling and supporting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and start-ups. · Fostering social communities and consulting operation · Establishing safety and security management systems for farms · Consulting related local resources

한 농촌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촌을 생산 공간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전문가 의견, 수요조사, 국내 농촌 여건(지역개발사업지구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농원, 체험농원, 체류농원, 관리농원 등 4가지 테마를 통합 배치하는 K-FARM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유형을 분류하였다(Table 3).

시설 운영과 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 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하였으며, 농촌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S/W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가. 임대농원

임대농원은 운영법인에서 농업인의 농지를 임차 후 도시민의 밭 영농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에게 재분양하는 방식이다. 농지를 임차한 영농경험이 풍부한 농업인을 영농가이드로 지정하여 도시민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부분적인 대리 경작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도시민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기계 임대시설을 운영하고 영농 자재와 종묘의 판매시설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농원과 연계하여 체험농원에 탈의장과 샤워실, 판매장, 식당, 휴게시설 등이 있는 클럽하우스(Club House)를 배치하는 등 도시민의 요구(Needs)를 고려하여 기존의 소규모 운영시설과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

공급하는 임대 구획의 규모는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66~99m²(20~30평)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업형(대규

모), 단체형(중규모)을 혼용 배치하여 다양한 주체의 활동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 체류농원

체류농원은 임대농원과 인접한 지역에 로그하우스(Log House)와 텃밭을 배치하여 도시민(이용객)의 숙박을 지원하고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KRC 지역개발센터 참여 전문가의 우량농지 보호 의견을 반영하여 체류농원의 텃밭은 꽃과 경관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조성하며 실질적인 텃밭의 기능은 임대농원을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장기 거주나 귀촌을 사전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위해 인근의 농촌 빈집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다. 체험농원

체험농원은 임대농원과 체류농원을 지원하는 클럽하우스와 식당, 주차장 등을 갖춘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농촌테마공원)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그린 어메니티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민(이용객) 대상 선호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사계절 농산어촌체험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클럽하우스에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여 인근 지역 농업인의 농산물을 소규모로 판매하고 체류형, 임대형 농원의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나도 농부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운영 과정에 청년 농부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

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청년 농부의 참여를 확대하여 농업·농촌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라. 관리농원

관리농원은 농업인이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기에 ICT 등으로 홍보하여 도시민이 직접 수확 후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성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의 직거래를 통해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우선 해결하며 도시민은 영농 참여를 통한 치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관리농원은 국내 농가 일부에서 진행되는 체험비 납부 후 일정 수량을 수확해가는 단순 농산물 수확체험과 차별화하기 위해, 도시민이 수시 또는 상시로 K-FARM 구역 내의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는 다양한 품목의 운영과 체험농원과 연계한 서비스 기반시설 이용, 체험프로그램 상시참여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관리농원은 점진적으로는 인근 지역의 과수나 채소 농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전체가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I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도시민 수요조사를 통해 농촌을 생산 공간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임대농원, 체험농원, 체류농원, 관리농원의 4가지 테마를 통합 배치하는 복합적 농원의 K-FARM 프레임워크 구축 모델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첫째, 임대농원은 운영법인에서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차 후 영농이 가능한 소규모 주말농장으로 리모델링한 후 도시민에게 재분양하고 지역 농업인은 영농가이드 활동 및 부분적인 대리 경작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영농기자재와 편의시설을 도시민의 요구(Needs)에 맞게 배치하였다.

둘째, 체류농원은 임대농원과 인접한 지역에 로그하우스와 텃밭을 배치하여 도시민의 숙박을 지원토록 하였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여 장기체류도 가능토록 구성하였다.

셋째, 체험농원은 임대농원과 체류농원을 지원하는 클럽하우스와 식당, 주차장 등을 갖춘 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며, 지역 어메니티자원과 연계하여 사계절 농산어촌체험이 가능하도록 S/W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였다.

넷째, 관리농원은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의 공급을

위해 농업인은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기에 ICT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에 홍보하여 도시민이 직접 수확 후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성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의 직거래를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구상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K-FARM 모델은 도시와 인접한 농촌지역, 특히 혁신도시 주변 농어촌지역에 적용하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 등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가지로 분류된 테마형 모델은 현재 추진·운영 중인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지구의 특성에 맞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FARM 프레임워크 구축의 실현을 위해서는 임대농원에 대한 수요분석과 같이 체험농원, 관리농원에 대해 도시민의 수요분석을 추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1) 가족농원: 농촌진흥청은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형 도농 교류 농원을 포괄적 개념으로 하여 ‘가족농원’으로 칭하고 “소규모 원예포와 통나무집이 결합하여 도시민이 건강, 휴식공간, 자녀교육 기능을 위해 이용하는 집단공간”을 ‘가족농원’으로 개념 정의하였다(RDA, 2008).

References

1. Lee, M. S, D. B. Park and J. H. Chae, 2007, A Factor-Cluster Benefit Segmentation of Potential Users on Allotment Garden with Log Hou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3(2), 93-105.
2.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2019,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Study of ‘The Rural Utopia Initiative for Happy Balanced Development’, 11-29.
3. _____, 2020, Changes in Citizens’ Perceptions and Demand for Agricultural and Rural Villages After COVID-19.
4.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Materials, 2019, Rural Development Project Presentation Materials.
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21, Innovation City, <https://innocity.molit.go.kr> (2021. 2. 10.).
6. Park, D. B. et al., 2005, Foreign Family Farms,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Special Countermeasure Committee,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7. Park, D. B., E.H. Son, and K.H. Kim, 2009, Dweller’s

- Requirements Analysis for Improving Community Garden with Log House in Rural Areas,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20(1), 33-49.
8. Park, D. B., S. D. Lee, H. H. Lee, M. S. Lee and M. J. Jang, 2006, Exploring the Allotment Gardens and Its Implication- Case Study on Kleingarten in German, Dacha in Russia and Civic Garden in Japa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2(2), 75-85.
9. Park, S. H., 2010, A Study on the Public Facilities and the Floor Plan of a Laube in Japanese Kleingarte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12(2), 49-58.
10. Park, S. H., 2011,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a Kleingarten Hous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2(3), 83-91.
11.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Manual, 2008, Manual of Stay-type Family Farm.
-
- Received 15 February 2021
 - First Revised 19 February 2021
 - Finally Revised 23 February 2021
 - Accepted 24 February 2021